

광주시, 인구정책관·교육청년국 신설한다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 추진

15일·국·본부 72과·정원 15명 감소
재정혁신단도 신설...재정위기 극복
강기정 “2030 광주대 전환 계획·실행”

광주시가 인구정책담당관과 교육청년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21일 광주시는 조직개편안이 담긴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전반기 ‘인공지능(AI), 미래차, 창업과 실증, 돌봄 표준도시 등 성과를 바탕으로 △인구·교육·청년 정책 강화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 △강도 높은 재정 혁신 △현안사업 실행력 강화 등을 담은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먼저 광주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인구·교육·청년 정책을 강화한다.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문화경제부시장 산하에 교육청년국을 신설한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지속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저출생·일자리·복지·주택·교육 등 균형발전 관점에서 광주시 재정과 연계해 실제 인구 유입 증대로 이어지는 실효성 높은 정책과 사업을 수립·조정한다.

교육청년국은 산업을 기반으로 인재양성·대학혁신·청년 정주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대학인재정책과를 신설해 인재양성과 대학혁신 정책을 총괄하고, 청년정책과는 청년정책에 대한 지휘본부(컨

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며, 교육지원정책과는 생애주기 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이전본부와 교통국을 통합해 통합공항교통국으로 개편한다. 군공항이전추진단을 운영해 서남권 상생과 동반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광역교통·공항 기능을 일원화하고, 전남도·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이전지역 주민과 소통 강화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재정혁신단을 신설한다.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상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담당관실 내 인력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 본격화를 위해 신활력추진본부는 복합쇼핑몰 건립과 Y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는 기능으로 재편한다.

신활력총괄관은 친수공간과의 Y프로젝트 사업을 이관받아 복합쇼핑몰 건립 지원 사무와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활력추진본부는 기존 4과에서 3과(신활력총괄관 + 친수공간과 통폐합)로 줄어든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와 공간 회복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공간국 조직을 강화한다. 도시계획과에는 신세계-터미널 복합개발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체계를 정비한다. 공간혁신과를 신설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도시를 회복시키고 도시재생과 노후도시 정비

전략적으로 기획·실행하게 된다.

AI산업 생태계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해 올해 AI기업 1000여개사를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AI반도체과에 AI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시립수목원 운영 확대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수목원·정원사업소를 신설하고, 조성 중인 도시공원을 시민의 쉼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공원관리사무소도 운영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광주시 본청 기준

15일·국·본부 72과는 현재와 같고, 공무원 정원은 4197명에서 4182명으로 15명 줄여 기준인건비 건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감소 인원은 일반직 14명, 소방직 1명 등이다. 다만 광주의 미래를 대비하고 핵심 현안사업을 수행하는 필수 분야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2030 광주 대전환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년국과 통합공항교통국, 인구정책담당관, 재정혁신단을 신설

해 광주시민의 인구·교육·청년 정책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도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全南日報



광주전통시장 우수제품판매전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광주시민들이 21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주최로 열린 광주전통시장 우수제품판매전에서 오이와 가지, 건어물 등 12개 시장 21개 점포의

나건호 기자

전남도의회, ‘국립의대 신설 정원 반영’ 정부 건의

“2026학년도 200명 반영을”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정원 방침 결정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21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의 의대 설립을 위해 정

부가 5월 중 확정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 국립 의대 신설 정원 200명에 대해 방침을 결정해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4월19일 국무총리 브리핑을 통해 ‘5월 입시요강에 2026년 대입전형

시행계획까지 확정한다’고 발표했고, 최근 2025학년도 전국 32개 의대별 자율 모집 인원을 1500여 명으로 잠정 확정했다.

당초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에서 500명 가량의 ‘여유 정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에서 전남 국립 의대 신설 정원을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는 게 도의회 입장이다. 이는 전남도의 기본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전남도는 500명 안팎의 여유 정원을 감안해 2026학년도 의대 신설 정원을 배정받아야 하고, 정부 요청에 따라 도민 의견 수렴과 대학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9~10월께 추천이 이뤄지도록 전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정부 추천대학 선정과 관련해선 “전남도와 함께 지역 내 의료체계 완성 구축, 전체 도민 건강권 확보, 지역 상생발전 도모,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업체 위탁 등 모든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고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 의료체계 완성을 위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 (062) 714-3471 FAX: (062) 714-3472